

9/20/26

설교 제목: 믿음, 십자가, 그리고 내려 놓음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마태복음 17 장 14-27 절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다(막 9:14-29; 눅 9:37-43 상)

14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끓어 엎드려 이르되

15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16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17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18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 때부터 나으니라

19 이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0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21 (없음)

죽음과 부활을 다시 이르시다(막 9:30-32; 눅 9:43 하-45)

22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23 죽임을 당하고 제삼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성전세를 내시다

24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 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아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 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25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26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27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변화산 위에서 일어난 일들은 정말 놀랍고 경이로운 일이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같이 희게 변했습니다.

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고 예수님은 그들과 더불어 대화를 하셨습니다.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신성과 하나님 나라를 목격한 베드로를 비롯한 세 제자들은 황홀경에 빠졌습니다.

베드로는 그곳을 내려오기 싫어 초막을 지을테니 그곳에서 살자고 예수님께 청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간 황홀하던 산 위의 모습과는 달리 산 아래에서는 한바탕 소동이 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세 제자들과 함께 나머지 제자들이 있는 산 아래로 내려 오셨습니다.

그런데 한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고 뿔뿔히 떨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간 산 아래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설명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간질병을 앓고 있는 자신의 아들의 병을 고치고자 예수님을 찾아 왔는데 예수님이 안계셔서 그곳에 남아있던 아홉 제자들에게 부탁했으나 그들이 이 일을 능히 해내지 못했다고 고합니다.

14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뿔뿔히 떨고 엎드려 이르되

15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16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마가와 누가의 기록을 종합해 보면 이 아이는 아버지의 외아들이었으며, 귀신에 사로잡혀 말도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막 9:17) 무리 중의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막 9:18)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버지는 방금도 귀신이 아들을 잡아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고 상하게 하였다가 겨우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눅 9:37)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눅 9:38) 무리 중의 한 사람이 소리 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눅 9:39)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 가나이다

(눅 9:40)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권위를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호기롭게 나섰으나 아이의 병을 고쳐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의 실패에 분노하시며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을 꾸짖어 내쫓으십니다.

그러자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나았습니다.

17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18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 때부터 나으니라

여기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는 특정한 소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그 시대 전체를 지칭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믿음 없고 빠뚫어진 세대와 구별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분노하신 것입니다.

귀신이 나가자 아이가 나았다는 것은 그 아이의 병이 귀신의 영향력으로 생긴 것임을 증거합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나아와 자신들은 왜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는지 그 이유를 묻습니다.

제자들의 물음에 예수님은 단호히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19 이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0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결국 이 문제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믿음이 작다고 하신 말씀은 17 절 말씀과 20 절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믿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믿음은 그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큰 기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겨자 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믿음이 겨자씨 만큼 작을지라도 결과를 산출해 낼 수 있지만, 믿음이 없는 불신앙은 어떠한 결과도 산출해 낼 수 없습니다.

비록 겨자 씨 만한 믿음이라도 그것을 기반으로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지속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당신의 주권적인 방법에 의해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을 이루워내십니다.

여기서 '산'은 문자적인 산을 가리키기보다는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커다란 문제, 난제 등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전능성에 대한 약속으로, 믿음이 지닌 생명력과 감추어진 무한한 가능성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21 (없음)

고대 사본들에는 '21 그러나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을 하지 않고는 나가지 않는다'라고 첨가되어 있습니다.

마가 복음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막 9:28)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막 9:29)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을 갈릴리에 모으십니다.

본격적인 예루살렘 여정을 앞두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임을 갖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한 번 당신이 가는 길 곧 메시아의 길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삼일만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수난에 대한 두 번째 언급입니다.

22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23 죽임을 당하고 제삼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아직도 매우 근심하며 믿음 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제 장면이 가버나움으로 바뀌어, 성전세에 대해 베드로와 대화하십니다.

성전세를 내는 이슈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그들의 제자로서 살아야 하는 삶을 가르치십니다.

첫 번째로 수난을 예고하신 후 세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 당신의 정체성을 보여 주셨던 예수님은 두 번째 수난을 예고하신 후 또 다시 당신의 정체성에 대해 설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그때 성전세를 받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성전세를 내라고 합니다.

당시 가버나움에서는 20 세 이상의 남자들에게 성전세로 한 사람 당 반 세겔을 거두었습니다.

24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 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아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 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은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므로 성전세를 낼 의무가 없다고 하십니다.

25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26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렇더라도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성전세를 내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성전세를 낼 돈을 마련하게 하십니다.

27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므로 성전세를 내지 않을 권리가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 스스로 당신의 권리를 내려 놓으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베드로가 익숙한 어부의 일을 통해 정확하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신 기록은 오로지 마태 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자 마태가 세리였기 때문에 세금 문제에 대해 보다 관심을 두지 않았나 추측해 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는 서로 다른 세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이 고치신 사건,

예수님께서 당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다시 언급하신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지 않아도 되는 성전세를 내신 사건입니다.

이 세가지 사건은 각각 다른 사건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하나의 일관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서는 ‘산 아래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사건’을 통해 제자들에게 믿음의 중요성을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귀신을 내쫓을 권세를 받았으나 정작 그 권세를 사용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들이 받은 권세가 부족했거나 받은 권세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거대한 능력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바라보는 살아있는 믿음을 원하십니다.

비록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 작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살아 있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해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영광의 길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와 고난의 길을 말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고 죽임을 당하실 것이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은 고난을 실패라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십자가 뒤에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생명의 길입니다.

십자가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 뒤에는 부활이 있고, 죽음 뒤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서는 성전세를 내는 사건을 통해 당신의 신분과 제자의 삶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전의 주인이시므로 성전세를 내실 의무가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 당신의 권리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 주신 제자의 모습입니다.

믿음은 단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 주신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 우리의 삶을 내어 드려야 합니다.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놓여 있든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게 우리의 권리와 유익을 내려놓음으로써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합시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어떤 고난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으며,

자신의 권리와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먼저 구하고,

끝까지 주님만 따라가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